**<제 52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수기>**

오직 성실함으로 버틴 나날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주 혜 림 (1994. 06. 14)

**1. 합격수기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제 5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동차로 최종 합격하게 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주혜림이라고 합니다. 2015년 1월 수험생활을 처음 시작할 무렵, 수많은 합격생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최종합격의 순간을 꿈꿨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직도 여전히 최종합격 발표의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최종합격 후 합격수기를 쓰고 있는 이 순간마저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숱하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한계에 부딪혀 자책했던 나날들이 많았지만, '회계사'라는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었기에 길고 힘들었던 수험생활도 끈기 있게 버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수험생분들의 수험생활에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지난 2년 반 동안의 제 수험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몇 글자 적어 보려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때가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학창시절 수학 경시대회 등 수학적인 면에서 큰 두각을 드러냈던 저는 제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회계사라는 직업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자본주의의 파수꾼이 되어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의 보이지 않는 부정을 바로잡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회계사가 되어야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경영학과에 진학했지만, 회계사가 되기 위한 길은 멀고 험난해 보였습니다. 머리가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제가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외로운 수험생활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 제 수험생활의 철칙은 “머리가 안 된다면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성실함과 정직한 공부시간 투입을 통해 최종합격을 이루어내자” 였습니다. 지금부터 오직 성실함으로 버틴 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수험생활에 대해 적어 내려가 볼까 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저의 공부방법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며, 그대로 취한다고 하여 100% 합격하는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단지 이 글을 읽고 계신 수험생분들이 제가 수험생활 중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찾고, 단기간에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수험생활**

(1) 2015년 1월 ~ 2015년 6월 : 나무경영아카데미 봄 기본 종합반 (1월 시작반)

(2) 2015년 7월 ~ 2015년 8월 : 학교 공인회계사반 정진초 (단기입실)

(3) 2015년 9월 ~ 2016년 2월 : 나무경영아카데미 객관식 종합반

2016년 2월 : 제 51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불합격

(4) 2016년 3월 ~ 2016년 8월 : 학교 중앙광장 유선노트북열람실

(5) 2016년 9월 ~ 2017년 2월 : 학교 공인회계사반 정진초 (단기입실 & 1차 정기입실)

2017년 2월 : 제 52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

(6) 2017년 3월 ~ 2017년 6월 : 학교 공인회계사반 정진초 (2차 정기입실)

2017년 6월 : 제 52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동차합격

**(1) 2015년 1월 ~ 2015년 6월 : 1차 초시 수험생활 @ 나무경영아카데미 봄 기본 종합반**

대학 입학 때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자는 목표를 설정했기에, 1-2학년 때에는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이수 요건과 영어성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학점이수의 경우, 1-2학년 경영학부 과정에서 경제원론 1&2, 회계학원리, 중급회계1, 관리회계, 마케팅원론, 오퍼레이션스 관리, 마케팅원론, 조직행동론 등을 수강했고, 3학년 1학기 휴학으로 인해 부족한 3학점은 학점인정 사이트를 통해 ‘중급회계2’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학점이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2014년 12월 말, 가장 친한 친구들과의 대만여행을 끝으로 작별을 고하고, 회계사가 되어야겠다는 설렘을 안고 나무경영아카데미 봄 기본 종합반 (1월 시작반)에 등록 후, 나무경영아카데미 독서실로 공부장소를 정했습니다.

봄 기본 종합반의 커리큘럼 상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과목은 김현식 선생님의 ‘중급회계1’과 김용남 선생님의 ‘원가관리회계’ 였습니다. 봄 기본 종합반의 특성상, 매일 오전 9시에 수업이 시작되고, 오전, 오후 수업 후, 오후 6시에 수업이 끝나는 정신 없고 바쁜 스케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하루 종일 들은 후 매우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귀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날 배운 범위를 그 날 제 때 복습하고 귀가하지 않으면, 계속 진도가 밀리게 되고, 다음 날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수험생활 역사상 가장 패기가 넘쳤던 시기였기에, 오후 6시 수업 종료 후 저녁을 먹고 나무경영아카데미 독서실에서 11시까지 복습 후,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더욱이 가장 맨 앞줄에서 실강을 듣겠다는 엄청난 욕심에 새벽 6시에 일어나 오전 8시부터 학원 문 앞에 줄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생활이 가능했던 건 제 수험생활 역사상 가장 자신감만 앞서는 시기였고, 마음 속으로 ‘다른 사람은 대부분 초시로 1차를 못 붙어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는 붙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채 못 가서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급회계1은 학부 수업에서 배운 경험이 있어서 복습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중급회계2와 원가관리회계는 처음 수강하는 과목이기에 매우 생소했고, 복습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했으며, 이에 더해 체력 또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2월부터는 ‘실강반 뒤쪽에 앉을 바에야 스크린 반 앞자리에서 편하게 들으며 공부하자’ 라는 생각에 스크린 반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봄 기본 종합반 등록 당시의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복습해야 할 양은 밀리고 밀려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봄 기본 종합반에서 매 주 응시해야 하는 진도별 모의고사의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아 이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응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 즈음하여 중급회계 수업이 종강하고, 상법 기본강의가 시작되었는데, 함께 종합반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들이 타 학원 선생님의 상법 강의를 수강한다는 이유로 모두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독서실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수험생들과 같이 타 학원의 상법 기본강의를 따로 결제하여 독서실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한 후, 저는 실강 수강보다 인터넷 강의가 저에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공부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6배속으로 강의를 수강하다 보니 수강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실강반 수강 시 날리게 되는 쉬는 시간, 이동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때 그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며,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완벽하게 복습 후,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종합반으로 전환하여 나무 독서실에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합격수기를 읽고 있는 수험생분들 중 수험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놓여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과 장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강과 인터넷 강의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패기와 자신감만 앞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은 채 수험생활을 시작한 결과 두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수험생분들은 이를 거울 삼아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장소를 찾아 수험생활의 첫 단추를 잘 꿰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김종길 선생님의 <재무관리>, 김혁붕 선생님의 <상법>, 김판기 선생님의 <경제>, 김기동 선생님의 <고급회계>, 정우승 선생님의 <세법>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단원이나 틀리는 문제들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6월 기본강의 완강이 목표였기에 ‘완강 후 다시 보자’ 라는 생각으로 4달 간 열심히 기본강의를 수강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분들도 기본 강의 수강 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해결하려 들거나 얽매이지 말고 쿨하게 넘기는 걸 추천 드립니다. 때로는 관련되는 다음 단원 수강 중에 ‘아 이거였구나’ 라고 뒤늦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완강 후 그 과목에 대한 큰 틀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숲을 보는 것이 가능해진 후에야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뒤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2015년 7월 ~ 2015년 8월 : 1차 초시 수험생활 @ 학교 공인회계사반 정진초 (단기입실)**

기본강의 완강 후, 6월 마지막 주에 학교 고시반 단기 입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급하게 최근 3개년 단기입실 기출문제를 뽑아 문제유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막 기본강의를 완강한 상태인 비루한 초시 1차생이었기에,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는커녕 문제를 푸는 실력 면에서 오랜 수험생활을 거친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거의 마지막 등수로 아슬아슬하게 학교 고시반 단기입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목표를 이루었다는 자만심으로 고시반에 입실한 후 안일한 수험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9월 객관식 종합반이 개강하기까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 고민하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고시반에 함께 입실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심화 종합반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또한, 저의 실력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욕심만 앞서 남들 따라 김종길 선생님의 <재무관리연습>, 김기동 선생님의 <재무회계연습>, 정우승 선생님의 <세무회계연습> 심화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실력도 제대로 겸비하지 못한 제가 두 달 동안 연습서 심화 강의를 따라가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주관식 유형의 긴 문제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로 인해, ‘1차는 힘들게 합격한다 쳐도 과연 2차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 강의를 눈으로 보기만 하면서 두 달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심화 강의 완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들은 것조차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매우 한심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던 고시반 정기 입실 시험까지 말도 안 되는 등수로 떨어지고, 탈락의 원인을 분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기본 강의 완강 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주요 과목인 재무회계와 세법, 재무관리, 원가관리회계의 회독 수를 늘려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객관식 책으로 문제 풀이 훈련을 열심히 했더라면 정기 입실 시험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흔히들 말하는 학원 심화 강의 즉, 1.5차 강의는 초시 1차생에게는 그저 상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험의 특성상 방대한 공부량으로 인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고, 심화 강의가 시작되는 7월은 초시 1차생의 입장에서 막 기본강의를 완강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심화 강의보다는 7월부터 객관식 교재를 구입하여 주요 과목에 대한 문제 풀이 훈련을 하는 것이 1차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차 시험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초시 1차생으로서는 문제 푸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을 찾아 몸으로 체득하고, 부단히 훈련해 나가는 것이 1차 합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긴 수험생활 동안 함께 수험생활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부터 또는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줄곧 ‘OO이 좋다더라’ 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취할 것은 취하되, 자신의 실력에 대해 냉철하게 상황 판단 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현재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 후, 계획한 대로 소신껏 수험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2015년 9월 ~ 2016년 2월 : 1차 초시 수험생활 @ 나무경영아카데미 객관식 종합반**

정기입실 탈락 후, 고시반 짐을 정리하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고시반 정기입실 시험을 탈락하면 1차 합격도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부족한 나의 실력’을 되뇌어가며 자책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9월 나무경영아카데미 객관식 종합반 개강 이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과목별 객관식 문제집을 구입하여 문제 풀이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시 1차생이다 보니, 모든 과목의 모든 강의를 빼먹지 않고 수강하여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문제 빨리 푸는 법을 터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김종길 선생님의 ‘객관식 재무관리 강의’와 김판기 선생님의 ‘객관식 경제학 강의’는 무조건 수강하시는 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관리나 경제의 경우, 과목 특성상 이론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범위가 끝이 없고,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식 강의를 통하여 수험 목적에 적합한 빠른 문제 풀이 방법을 터득하고, 심오한 이론적인 면에서 벗어나 조금은 기술적인 면에서 연습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식 세법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가장 험난한 과목이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 가로풀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실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법 워크북으로 해당 단원의 개념을 정리한 직후에야 그 단원의 문제풀이가 가능했고, 이 또한 일주일이 지나면 언제 봤냐는 듯 모두 까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법의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파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라도 잘 하자’ 라는 생각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버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평균 13시간 공부를 실천하며 각 과목별 객관식 문제집 2회독을 완료하니, 1월 말 예정되어 있는 나무경영아카데미의 전국모의고사가 1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턱없이 시간이 부족함을 예감했습니다. 그 어떠한 과목도 전 범위에 걸친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지 못했고, 여전히 세법의 경우 가로풀기가 많이 벅찬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차 전국모의고사의 결과는 상위 35%로 합격권과는 매우 거리가 먼 성적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10,000명 안팎 정도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하여 그 중 1,700명이 1차 시험을 합격하므로 저는 대략 상위 20% 내에 들어야 1차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 1차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시험을 준비했던 친한 친구들 또한 1차 전국모의고사 채점 후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남은 한 달 동안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라며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던 1차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 응시 후 최소한 후회는 없을 정도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위의 많은 유혹들을 뿌리쳐 가며 공부만 하며 달려왔던 1년이라는 지난 시간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한없이 흘러 나왔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주요 과목의 실력을 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기에, ‘경제/상법/경영 암기과목으로 승부를 보자’ 라는 공부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시험 직전까지 주요 과목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개념정리와 문제 풀기 훈련을 반복하며 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1차 시험 응시 후, 채점을 하니 376점이 나왔습니다. 1차 초시 합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예상 외의 높은 점수로 기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였습니다. 곧 합격 커트라인 예상 점수가 온라인 상에 떠돌기 시작했고, 제 점수는 정확하게도 커트라인 대에 놓여 있어 합불 여부를 예측하기 가장 힘든 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우선 학교 복학을 결정했고, 합격자 발표가 나는 3월 말까지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 2016년 3월 ~ 2016년 8월 : 1차 재시 수험생활 @ 학교 중앙광장 유선노트북열람실**

3월 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커트라인 점수는 381.5점이었습니다. 5.5점 차이로 2-3문제만 더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 매우 아쉬운 점수였지만,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1차 합격을 해도, 어차피 2차에서 다유가 뜰 실력이겠구나’ 라고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하며,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복학을 핑계로 절대 수험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학교 과제와 학업을 핑계로 한 학기 동안 수험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자연스레 7월부터 다시 1차 공부를 시작한 꼴이 되고, 초시 1차생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를 다니며 원가관리회계연습을 제외한 3가지 주요 과목의 연습서를 완벽히 1회독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학교 수업과 과제 병행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쉽지만은 않은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재시생에게 있어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시 1차생과 실력면에서 간격을 벌려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수험생분들도 만약의 경우 초시 1차 불합격을 겪게 되신다면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시지 마시고, 주어진 시기를 실력향상의 기회로 삼아 절대 흥청망청 흘려 보내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3월에서 6월까지 4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 또한, 보람 있는 재시 수험 생활을 보내기 위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유선노트북 열람실에서 목표했던 연습서 공부 후, 저녁 11시에 귀가하는 매우 규칙적인 수험 생활을 보냈습니다. 최종 합격을 한 후 뒤돌아 보니, 그 시기가 저의 실력 향상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기가 끝난 후, 여름방학을 맞아 9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정진초 정기입실’ 이라는 단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쉬지 않고 이어진 긴 수험생활로 인하여 많이 지쳐 있던 상태라, 학교 커뮤니티에서 함께 9월 정기입실을 목표로 하는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초시생 때와 달리 재시생 때에는 ‘정진초 정기입실 준비’ 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매우 달랐습니다. ‘이번 정기입실마저 떨어지면 나는 정말 희망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스터디에 임했고, 함께 입실을 준비하는 스터디 멤버들 또한 저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스터디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가장 미친 듯이 공부한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같이 고려대학교 이과캠퍼스 하나스퀘어 스터디룸에 모여 실전 문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두 달 동안 함께 각 과목별 기출문제집과 객관식 문제집을 전수 1회독하고, 최근 3개년 정기입실 기출문제를 뽑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 입실 시험날이 가까워질수록 스터디 멤버들과 더 미친 듯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달 동안 정기 입실 시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두 상위권 등수로 입실에 성공했고, 저 또한 3등이라는 믿기지 않는 높은 등수로 입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실력이 많이 올랐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동안의 나의 공부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자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입실 시험은 단지 실력을 중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 2016년 9월 ~ 2017년 2월 : 1차 재시 수험생활 @ 학교 공인회계사반 정진초**

9월 정진초 입실 후에는 라운드 준비에만 열중했습니다. 라운드는 정진초에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4번에 걸쳐 진행되는 시험으로, 주요 과목인 세법, 재무관리,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 연습서에서 문제가 응용되어 출제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정진초의 라운드 시험 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초시 1차생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이지만, 재시생에게는 주요 과목의 연습서를 두 달에 걸쳐 최소 2회 이상 꼼꼼하게 정독할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락을 면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라운드에 임하는 다른 수험생들과는 달리, 저는 라운드를 실력향상의 기회로 삼아 ‘정진초 상위 10등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자’ 라는 단기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1라운드 시험이 진행되는 주와 그 바로 전 주에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연습서 문제를 최소 2회 이상 풀고 익히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라운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진초에 입실하게 되신다면 라운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차피 봐야 하는 시험이라면 능력껏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고되고 힘든 두 달이지만, 4번의 라운드 시험을 거치고 난 후에는 2차 연습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관식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자신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 1등, 11등, 5등, 7등으로 꾸준하게 상위권의 점수대를 유지했으며, 최선을 다해 라운드 시험을 준비했던 것이 2차 동차합격에 결정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라운드 시험이 끝난 후에는 그 동안 소홀히 했던 경제, 상법, 경영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재시생 때 경제, 상법, 경영학 등의 암기과목을 언제 다시 시작해야 할 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라운드 시험이 끝난 11월 중반부터 암기 과목 공부를 다시 시작했지만, 이전에 공부했던 익숙한 내용들이 쉽게 다시 떠올라서 큰 어려움 없이 암기 과목 실력을 이전의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진초에서 진행되었던 ‘경상경 라운드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특히나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상법의 ‘어음, 수표’ 파트, 경제의 ‘환율’ 파트, 경영학의 ‘생산관리’ 파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긴 수험생활을 보내면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순간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순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결과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그 순간을 교훈 삼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레 뒤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까지 모든 과목에 대해 전 범위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실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기본서 개념정리와 객관식 문제집 문제풀이를 반복했습니다. 초시 1차 준비 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러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기도 했기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월부터는 2월 초 예정되어 있는 나무경영아카데미 1차 전국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실전 문제 풀이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전 연습 스터디’ 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긴장감 넘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시간 관리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반복하여 많이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지를 짧은 시간 내에 식별해내고, 그러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실전감각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스터디 멤버들과의 냉정한 점수 공개를 통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자신보다 뛰어난 실력을 지닌 스터디 멤버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험생활 중 가장 잘했던 점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실전 연습 스터디에 참여하여 실전 감각을 키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전 과목 최근 10개년 공인회계사 시험 기출문제를 뽑아서 풀었고, 특히, <경제>의 경우, 감정평가사와 국회 8급 기출문제, <재무회계>의 경우, 김현식〮김기동 선생님의 객관식 재무회계 문제집 모의고사, 김재호 선생님의 기출 베스트 모의고사, 파이널 재무회계 모의고사, <세법>의 경우, 임성종 선생님의 스마트 세법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세무사 기출문제까지 닥치는 대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전국모의고사를 보기 전 날 밤, ‘이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투입한 노력만큼, 나무경영아카데미 1차 전국모의고사에서 전체 80등 (상위 2%)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평소 실력만 잘 발휘한다면 이번 1차는 절대 떨어질 수 없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섣부른 자만심으로, 2월 고시반 강의 지원 시 나무경영아카데미 권오상 선생님의 ‘2017년 회계감사 유예강의’를 미리 구매했지만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전국모의고사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1차 최종 시험일까지 전 과목에 대한 막판 정리를 꼼꼼히 하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끊임없는 성실함과 노력의 결과로, 제 52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433.5점으로 전체 224등을 기록했고, 꿈으로만 바래왔던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6) 2017년 3월 ~ 2017년 6월 : 2차 동차 수험생활 @ 학교 공인회계사반 정진초**

1차 시험 종료 후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채점 답안이 올라와 고향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채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채점을 한 결과 400점이 넘는 매우 안정적인 합격권 점수를 기록하여, 편한 마음으로 이틀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바로 다시 2차 공부에 돌입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수험생분들도 1차 가채점 점수가 높아 합격선이라고 판단이 내려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회계감사 강의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운 1차 시험 직후에 감사 강의를 빠르게 완강한다면 남들보다 조금은 여유 있게 2차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역시나 가장 막막했던 것은 ‘회계감사’ 과목이었습니다. 회계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과목은 2차 수험기간 전까지 최소한 3회독은 했다는 생각에 그다지 큰 걱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다시 듣는 것 또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여 구매하지 않고, 2차 시험까지 ‘각 과목별 필수문제 3회독’을 목표로 연습서를 정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아직 강의 한 번 들어 보지 않은 생소한 과목인데다가, 많은 동차생들이 처음부터 버리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동차합격을 목표로 정했고, 회계감사를 버린다고 나머지 네 과목을 모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었기에 끝까지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은 후, 미리 구매해 놓은 권오상 선생님의 회계 감사 유예 강의를 몰아쳐 듣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유예생과 비교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실력으로 회계 감사 시험에 응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루에 평균 3-4강씩 강의를 듣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목차를 외우고, 스터디 가이드를 정독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내용인 데다가, 실무에 가까운 내용을 이론으로만 접하고 이해하려니 마음에 깊이 와 닿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유예 강의 완강’ 만을 목표로 3월 한 달 간의 시간을 매우 바쁘게 보냈습니다.

총 72강의 감사 유예 강의를 모두 완강하니 3월 말이었습니다. 스터디 가이드 1회독을 막 끝낸 회계감사를 제외하고도 4과목의 연습서를 3달 안에 완벽히 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매우 조급해졌습니다. 회계감사에만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함을 깨닫고, 같은 라인에서 함께 공부하는 언니와 단둘이 감사 목차 스터디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매일 한 단원씩 목차 암기 말터디를 진행했고, 주말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여 시험 직전까지 ‘목차 암기 3회독’ 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암기와 병행하여 최소한 Study Guide의 각 단원마다 수록되어 있는 문제만큼은 직접 답안을 작성해보고, 모범 답안과 비교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월까지 회계감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별 연습서의 ‘필수문제 3회독’을 목표로 미친 듯이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과목별 수험서는 김종길 선생님의 <재무관리연습>, 김재호 선생님의 <재무회계연습>, 임세진 선생님의 <원가관리회계연습>, 정우승 선생님의 <세무회계연습>으로 정하고, 최소한 한 권이라도 완벽히 하고 시험장에 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각 과목별 필수문제 리스트 이외의 문제들은 유예생이 된 후에 풀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여 과감히 버렸습니다.

동차생은 유예생에 비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에 3월부터 6월까지 네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고시반에서 공부 후, 매일 같이 고시반의 문을 잠그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게만 느껴졌던 2차 수험기간에는 주말 또한 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절대 쉬지 않았습니다. 2차 시험이 다가올수록 커져가는 불안감과 ‘나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수록 더욱 더 제 자신을 벼랑 끝에 몰아 넣으며 하루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고시반의 문을 잠그고 경영본관 앞에서 홀로 맡는 새벽 2시의 공기, 밥을 먹으러 갈 때나 화장실에 갈 때에도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던 암기 노트들, 그리고 앞이 캄캄했던 새벽 귀갓길 모두 최종합격을 하고 보니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6월 초부터는 세법의 경우 강경태 선생님의 <세무회계리뷰>, 재무관리의 경우 이영우 선생님의 <GS 모의고사 6회분>과 <단기 특강 8회분>, 재무회계의 경우 김재호 선생님의 <GS 모의고사 3회분>, 회계감사의 경우 도정환 선생님의 <GS 모의고사 3회분> 문제를 구입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고, 최종 실력을 검증해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1차 시험 때와는 달리 2차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더 완벽히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머릿속에 끝없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차생의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연습서에 표시해 둔 자주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차 주제들을 다시 한 번 숙지한 후, 2차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제 52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대해 요약하자면, 특히 ‘세법’과 ‘회계감사’가 역대급으로 어려운 해였습니다. 세법의 경우, ‘IFRS 감가상각비 특례’, ‘포합주식’ 등 많은 수험생들이 버리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올해 개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회계감사의 경우, 유예생과 동차생의 구분이 무차별했을 정도로 수험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목차 암기’ 가 무용지물이 될 만큼 단순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감사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원가관리회계와 재무관리는 직전 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이지만, 재무회계의 경우, 계산 위주의 문제가 아닌 ‘회계처리의 방법에 대해 서술해보라’ 는 새로운 출제 유형의 문제가 주를 이루어 수험생들이 실제보다 더 어렵게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2차 결과를 기다리는 두 달 동안 매일 같이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회계감사의 경우, 아예 망했다는 생각으로 2차 발표일 일주일 전부터는 학교 열람실에 가서 회계감사 기본서를 공부하기 시작할 정도로 불안감에 떨며 2차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60.1점의 믿기지 않는 점수로 회계감사를 아슬아슬하게 넘겼고, 꿈에만 그려오던 제 52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동차로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3. 과목별 공부방법**

**(1) 세법**

세법은 대다수의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특히, 1차생 때에는 객관식 세법을 가로풀기 할 수 있는 실력까지 끌어 올리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세법은 과목의 특성상, 암기할 양이 가장 많고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또한, 법 문구가 많기에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다음 날이 되면 쉽게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과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법 워크북과 객관식 세법 문제 풀이를 무한 반복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푸는 와꾸에 익숙해 지고, 세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 객관식 세법을 풀 때에는 그 단원 범위에 해당하는 세법 워크북 개념을 정리한 직후에야 문제 풀이가 가능했고, 한 문제를 푸는 데에도 최소 5분에서 많게는 30분까지 소요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세법 워크북 개념 정리와 객관식 세법 문제 풀이를 무한 반복하는 과정에서 객관식 세법 가로풀기가 가능한 실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세법은 무엇보다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수험생분들께서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로풀기가 가능해질 정도로 실력을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2차 세무회계 역시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처음 보는 큰 종합문제에 적응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특히, 2차 세무회계는 정확한 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세무회계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최대한 자세한 풀이과정 작성을 통해 세무 조정 사항이나 계산 과정에서 부분점수를 최대한 많이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는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암기하고 종합문제를 풀면서 암기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이 가까워 졌을 때에는 강경태 선생님의 <세무회계 리뷰>를 구입하여 실전연습을 했던 것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만을 골라 정확하게 문제 푸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정우승 『세법 워크북 1&2』, 정우승 『객관식 세법』, 정우승 『세무회계연습 1&2』

**(2) 재무관리**

재무관리는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논리를 쌓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정말 힘들어지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처음 재무관리를 접하게 되면, 기업가치, 옵션, 채권 등의 생소한 재무적 개념을 배우게 되고, 과목 특성상 깊이 있게 파기 시작하면 범위가 끝이 없고 두뇌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수험생들이 1차 공부 시에 재무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몇 년 간의 출제 경향을 미뤄보았을 때, 1차 재무관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평입니다. 따라서, 절대 버리지 말고 객관식 재무관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 정도만 꼼꼼히 반복하고 시험에 임한다면, 1차 시험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재무관리연습은 제가 생각하기에 꼭 동차 시절에 붙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예로 넘기는 순간부터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할 양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최신 출제 경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시험 준비생 수준으로는 절대 커버할 수 없는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재무관리연습은 동차로 합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와 연습 강의를 통해 충분히 무엇을 공부해야 할 지를 알고 본인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2차 재무관리의 경우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GS 모의고사>나 <단기특강 모의고사>를 구하여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재무관리』, 김종길 『객관식 재무관리』, 김종길 『재무관리연습』

**(3) 회계감사**

최신 출제 경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는 ‘회계감사 목차 암기’ 만으로는 2차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차 암기를 하되, 암기한 문장과 키워드를 적용하여 문제 상황에 맞는 글을 써 내려가는 연습을 꾸준히 할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목차 암기와 병행하여 최소한 Study Guide의 각 단원마다 수록되어 있는 문제만큼은 직접 답안을 작성해보고, 모범 답안과 비교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많은 유예생이라면 권오상 선생님과 도정환 선생님의 감사 기본서를 모두 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가 공부했던 수험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소한 감사 용어들을 다른 수험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계감사 과목은 그 특성상 실무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책을 통한 이론으로만 접하고 이해해야 하니 실제와 이론과의 괴리가 가장 크고, 공부하기가 가장 난해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서를 여러 번 정독하고, 만약 그러한 상황에 실제 놓였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상상해가며 공부한다면, 실제와 이론과의 괴리를 좁히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계 감사 시험 답안 작성의 경우, 문제 출제자가 의도한 핵심 키워드나 내용은 있겠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안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를 마주치게 된다면, 느낌상 그럴듯하게 관련된 내용으로 답안지를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한다면 백지를 내는 수험생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상 『회계감사 Study Guide』

**(4) 원가관리**

많은 수험생들이 1차 준비 시에 원가관리를 소홀히 하고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버리지 말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부담이 된다면 문제를 푸는 틀이 정해져 있는 원가 파트라도 버리지 말고 가져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차 시험에서 회계학은 한 문제당 배점이 3점입니다. 회계학에서 원가 문제 2문제만 더 맞추어도, 다른 과목에서 3문제를 맞춘 것과 같은 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가회계는 처음에 구조를 잡는 것은 힘들지만, 한 번 문제 푸는 구조를 정립하면 휘발성이 가장 약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흔히들 말하는 와꾸를 잘 정립해 놓으면 1차뿐만 아니라 2차 시험 준비 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차와 2차 시험 공부의 괴리가 가장 큰 과목은 원가관리회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의 길이와 사이즈가 커지고,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 또한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문제 푸는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원가파트와는 달리, 관리 파트의 문제들은 출제 범위에 대한 폭이 매우 넓고, 문제를 풀 때에도 그 때 그 때 문제를 보고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은 절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기에, 저는 2차 시험에서 60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제 푸는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원가 파트의 문제의 정답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서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김용남 『원가관리회계』, 김용남 『객관식 원가관리회계』, 임세진 『원가관리회계연습』

**(5)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수험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과목이고, 수험생활 동안 가장 많이 시간을쏟고 공부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회계원리, 중급회계 1&2, 고급회계 기본서를 공부할 때 회계의 기본 구조와 산식에 대한 기본기를 잘 다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처음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 분개를 끊는 법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던 것이 재무회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인세 회계, 오류 수정, 종업원 급여, 파생금융상품, 연결회계 등의 단원들은 흔히들 말하는 와꾸에 대한 틀을 잘 기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더해 재무회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 관리’ 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능력을 키워야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차 시험 준비 시에는 김재호 선생님의 기출 베스트 모의고사와 객관식 파이널 재무회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연습 문제풀이를 했고, 2차 시험 준비 시에는 김재호 선생님의 2차 파이널 재무회계 모의고사로 정확한 시간을 재고 실전 연습 훈련을 꾸준히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보다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꾸준한 훈련을 통해 문제 푸는 법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회계는 1차 시험 준비 시에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면, 2차 시험 준비 시에 부담이 가장 적은 과목입니다. 2차 준비 시에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할 학습량이 가장 적은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수험생들이 고급회계를 어려워하여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제 경향을 보았을 때, 고급회계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을 뿐더러, 처음부터 소홀히 하게 되면 수험 생활 내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기를 가장 잘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가 어려운 연결 분개 등은 반드시 반복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2차 연습서를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 김기동 『중급회계 1&2』, 김기동 『고급회계』, 김기동 『객관식 재무회계』, 김재호 『재무회계 기출 Best 모의고사』, 김재호 『객관식 Final 재무회계』, 김재호 『재무회계연습』, 김재호 『2차 Final 재무회계』

**(6) 경제학, 상법, 경영학**

경제학의 경우,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와 객관식에 수록되는 문제가 모두 비슷하기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는 덜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학은 1차 시험에 한하여 공부하면 되므로 기본 개념을 잘 정립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 문제 대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 경제학의 경우 문제 양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막판 정리를 위해 꼭 봐야 할 문제를 추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법의 경우, 김혁붕 선생님의 기본 강의를 수강했으며, 최소한 상법 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만은 완벽히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공인회계사 시험의 상법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상법 조문과 판례의 결론들을 암기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시험 직전까지 상법 신강을 3회독하였으며, 기출문제도 반복 숙달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영학의 경우, 암기할 양이 매우 많고,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기본 강의를 듣고 객관식 강의로 문제 풀이 연습을 하면서 우선 암기해야 할 사항에 대한 범위를 추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루에 끝장내기’ 라는 책에 암기할 사항을 단권화하고, 자투리 시간에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새로 접하는 개념은 그 때 그 때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병열 『경제학 연습』, 김판기 『객관식 다이어트 경제학』, 정병열 『경제학 기출문제』 / 김혁붕 『회계사 상법 신강』, 이수천 『CPA 기출+모의고사』, 정인국 『하루에 끝장내기, 상법』 / 전수환 『에센스 경영학』, 전수환 『객관식 경영학』, 최중락 『경영학 기출문제』

**4. 합격수기를 마치며**

부족한 글 솜씨로 쓴 합격수기이지만, 제 합격수기를 통해 많은 수험생분들이 자신도 최종 합격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공부에 정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머리가 뛰어나게 좋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수험생활’ 없이는 결코 최종 합격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의 경우, 아침 9시 ~ 새벽 2시까지 하루 평균 12 ~ 14시간 공부를 꾸준하게 실천했으며,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휴식을 취하는 매우 규칙적인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수험생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수험생활 패턴을 찾고, 자신만의 성실함으로 끊임없이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활 전반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저만의 공부 방법 2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첫째, 자신만의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날짜, 디데이, 할 일, 공부 시간 등을 스터디 플래너에 기록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자신만의 공부를 계획해나갈 수 있고, 끝마친 공부를 하나씩 체크해 나가며 얻는 성취감은 쉽게 안일해질 수 있는 긴 수험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스터디를 구성하여 꾸준한 실전연습을 통해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소 1년 반 이상의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시험의 특성상, 쉽게 흐트러지거나 초심을 잃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난 스터디원이 있는 실전연습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실전연습과 냉정한 성적공개를 통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어주고,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스터디에 참여하여 힘들고 고된 수험생활을 겪어나가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2년 반 동안의 수험기간 동안 숱하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한계에 부딪혀 자책했던 나날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며 큰 힘이 되어준 고마운 분들에게 이 합격수기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의 합격수기를 읽어주신 수험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꼭 최종합격의 목적지에 다다르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